WWW.KMI.RE.KR

제 213호 · 2013년 7월 18일

해운·물류연구본부국제물류연구실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임진수 감리위원

KMI 국제물류위클리

KOREA MARITIME INSTITUTE





| CONTENTS |

물류정책·사업동향

1. 장쑤성, 내하 수로 고속도로 롄션노선 건설 박차
2. EU, 연근해운송 활성화를 위해 관세절차 완화 추진
3. 천진, 중국 두 번째 자유무역지대 지정 기대
4. 호주 Goodman그룹과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, 중국 물류창고 투자확대 발표

물류시장동향

1. 중국, 신장 이녕시에 국제물류교역센터 건립
2. CMA CGM, Round-the-world 서비스 업그레이드

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물류정책·사업동향

□ 장쑤성, 내하 수로 고속도로 롄션노선 건설 박차

○ 장쑤(江苏)성 정부는 성내의 내하운송 조건을 개선시키고 강과 바다의 복합운송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2011년 4월부터 성내의 항로 건설을 추진함
- 롄션노선(连申线)은 롄윈강에서 상하이를 연결하는 수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화물선의 운항능력 증대 가능

○ 롄션노선은 중국 동부 해안선과 징항대운하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프로젝트는 장쑤성 "12.5" 기간의 교통중점공사임
- 본 프로젝트에는 롄윈강항에서 상하이까지 내하수로를 확장하고 수심을 증대시킬 예정임
- 공사완료 후 롄윈강항(连云港港), 다펑항(大丰港), 양커우항(洋口港), 루까오항(如皋港) 등 연해 항만간 내하 수로를 이용한 화물운송 가능

○ 이번 공사는 2014년 초 완공될 예정으로 수베이[1], 수난[2] 구간으로 나누어서 운영 할 예정임
- 롄션노선의 난통(南通)구간은 총 길이는 66.4km이며 1개의 1,000톤급 복선수문공사, 정박지, 선박서비스구역의 건설을 위해 총 40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임
- 현재까지 수로공사는 92%, 수문공사는 80% 완료되었고, 123km의 제방건설과 28개의 교량건설, 루까오정박지, 해안서비스 구역의 공사가 진행 중임
- 수베이 구간은 옌허(盐河)~관허(灌河)~서양허(射阳河)~통위허(通榆河)~통양운하(通扬运河)~루타이운하(如泰运河)-지아오강허(焦港河)까지이며 수난 구간은 션장~수중내하항 노선으로 나누어짐

○ 완공 후 대형선박의 운항과 효율적인 화물운송이 가능해져 장쑤성, 특히 상하이항의 물동량 증대가 예상됨
- 현재 장쑤성 지역 화물은 차량을 통해 연해 항만으로 운송되고 있음
- 롄션노선 개통 후, 100톤급 항로가 1,000톤급으로 확장되어 북쪽으로는 롄윈강항에서 동부 연해까지, 남쪽으로는 난통지아오항에서 장강을 거쳐 상하이까지 선박 운행이 가능해지므로 항만 물동량이 증가될 전망임

1) 수베이 (苏北) : 장쑤성의 북부지역
2) 수난 (苏南) : 장쑤성의 남부지역

< 롄션노선 항로계획도 >



자료 : www.port.org.cn, 2013.7.9.

박여진 연구원 (☎ 02-2105-2967, yjp06@kmi.re.kr)
이주호 부연구위원 (☎ 02-2105-2890, jooho@kmi.re.kr)

□ EU, 연근해운송 활성화를 위해 관세절차 완화 추진

○ EU 집행위원회(European Commission)는 번거로운 관세절차를 완화하고 항만에서의 지연을 줄여 보다 많은 EU 통과화물이 도로운송에서 연근해운송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
- 현재 포워더들과 수출업자들이 연근해운송으로 유럽 통과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항만에서의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과 심각한 지연이 야기되고 있음
- 선박은 통관을 위해서 몇 시간 또는 심지어 며칠을 대기하는 경우도 있음

○ 현재 화물적체와 공해라는 큰 문제에 직면해 있는 유럽은 저비용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근해운송을 통해 도로운송의 과부하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, 그 일환으로 2015년까지 Blue Belt, 즉 단일 EU 해운시장을 구축할 예정

○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EU 역내 및 역외 수송을 구분하여 적용 가능한 통관절차 완화 방안을 제시함
- 첫째, EU 역내 해상운송 화물을 위한 통관절차 완화로, EU 역내 화물을 EU 역내 정기항로를 통해 운송하는 선사들은 현재보다 더 간소화되고 유연성 있는 통관절차를 적용받게 될 예정
- 둘째, EU 역내 및 역외 항만에 접안하는 선박[1]에 대한 통관절차 완화로,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운송사가 화물의 상태를 신고할 수 있는 전자화물처리시스템(E-Manifest)[2]을 올해 말까지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

○ EU 집행위원회는 금번에 제안한 통관절차 완화조치로 향후 비용절감, 행정 간소화, 무역진흥 및 복합운송 활성화, 특히 연근해운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
자료 : container-mag.com, 2013.7.11.

김홍매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28, hisgrace@kmi.re.kr)

1) 90% 가까이 되는 선박들이 EU 역내 화물과 EU 역외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며, EU 역내 및 역외 항만에 접안함
2) EU 역내 및 역외 화물을 구분 가능한 정보를 제공.

□ 천진, 중국 두 번째 자유무역지대 지정 기대

○ 북중국의 주요 항만도시인 천진시는 지난 주 첫 번째 자유무역 시험지구로 승인받은 상해[1]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 자유무역 시험지구로 지정될 가능성 있음
- 천진지방정부는 도시의 물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중국 국무위원회(또는 중국 내각)에 자유무역지대 지정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음
- 지정 요청 대상지는 천진시 동쪽 해안의 빈해(Binhai)신구에 위치한 동강 보세구역임
- 약 98억 USD에 달하는 투자기 이뤄져서 총 40km^2 에 이르는 자유무역지대가 매립지에 건설될 것이고, 공사기간은 5년으로 예상됨
- 해당제안은 원칙적으로 국무위원회의 지지를 받아냈으며 현재 국무위원회 각부서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

○ 천진시는 해당지역이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될 경우 중국의 주요한 물류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
- 심천과 상해에 이어 중국 경제를 이끌 북중국의 엔진으로 여겨지는 천진시는 전통적인 중공업 도시에서 물류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임
- 작년 천진항의 항만물동량은 4억 1,700만 톤으로 세계 4위 수준이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1,230천이백삼십만 TEU로 세계 11위 수준임

○ 또한 천진시 자유무역지대 지정 제안에는 외국 방문객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포함
- 무비자 정책으로 동강 및 시내지역에 보다 많은 외국인 방문객을 유치, 호텔 및 쇼핑 사업 활성화 및 해당지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

○ 천진시는 자유무역지대 지정을 원하는 다른 동부해안 도시들에 비해 유리한 여건 보유
- 천진시의 자유무역지대 지정 계획은 상해와는 궤를 달리하고 있고 이는 다른 경쟁도시들에 비해 돋보이는 점이 될 것임
- 자유무역지대가 되기 위해서는 비교적 큰 규모의 운송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천진시는 최근 해당분야에 대한 진전이 이뤄졌음
- 또한 최근 천진시는 전통적인 강점인 내륙지방과의 연계성 뿐 아니라 선박등록 및 금융리스에 관한 여러 사업 친화적 정책들을 도입하였음
- 또한 등록 시 선박이 보다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선박등록의 조건을 완화, 많은 선사들이 선박을 등록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지역 해상무역을 활성화 시킬 것임

자료 : www.cargonewsasia.com 2013.7.11.

전형모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17, hmjeon@kmi.re.kr)

1) KMI 국제물류위클리 212호 참조

□ 호주 Goodman그룹과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, 중국 물류창고 투자확대 발표

○ Goodman China Logistics holding을 통해 고급형 물류창고 투자를 15억 달러까지 확대

- 호주 자산 투자 업체인 Goodman그룹과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(CPPIB)는 Goodman China Logistics holding(GCLH)의 지분을 각각 1억 달러와 4억 달러만큼 추가 매입하여 통해 중국 물류 창고 투자를 확대
- GCLH는 2009년 9월 Goodman그룹과 CPPIB가 20대 80의 비율로 조인트벤처 형태로 설립된 회사로 중국 주요거점의 고급형 물류창고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
- GCLH는 지속적인 플랫폼 투자와 고급 인력 확보, 주요 물류 시장의 지속적인 점유율 확대를 통해 4백만㎡ 이상의 공간을 확보함
- 2013년 6원 30일 기준으로 중국의 상해, 베이징, 천진, 곤산, 청두, 소주, 자싱 7곳의 시장에서 17개의 물류 창고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으며 창고 점유율은 98.2%수준임
- GCLH는 Goodman그룹과 CPPIB가 회사설립당시 투자한 10억 달러에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5억 달러의 자금이 추가로 마련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물류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임
- 최근 천진, 곤산, 상해지역에 10만㎡ 이상의 공간을 임대하였고 주요 시장 지역을 대상으로 50만㎡ 공간의 고급 물류 시설을 개발 중이며 지속적인 고객 요구를 반영하여 1년 이내에 80만㎡ 규모의 창고시설을 추가 개발할 전망

○ 고수익의 중국 물류창고 투자에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원화된 자본이 투입

- 투자확대를 결정한 캐나다의 연금투자위원회(CPPIB)는 전문적인 투자 조직으로 1,800만의 캐나다 연금 가입자를 수익자로 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부동산 투자, 사회기반시설을 주로 투자하고 있고, Goodman그룹은 호주기반의 자산투자회사로 아시아, 유럽, 북미 등 다양한 지역의 상업 자산에 투자하고 있음
- 한편 일본 미쓰비시물류(Mitsubishi Logistics Corp)와 미국 사모펀드 와버그 핀커스(Warburg Pincus) 등도 중국내 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
- 중국 물류창고의 투자확대는 창고 임대료 수익률이 주요 10개 대도시를 기준으로 지난 2007에서 2012년 사이 연평균 5~10%를 기록하여 같은 기간 사무실과 상가 임대료 수익률이 각각 4.62%, 4.41%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기 때문임

자료 : www.marketwire.com, 2013.7.10.

이홍원 연구원 (☎ 02-2105-2897, hongwon@kmi.re.kr)

물류시장동향

□ 중국, 신장 이녕시에 국제물류교역센터 건립

○ 신장(新疆) 이녕(伊宁)시는 올 9월말에 서북국제물류센터를 준공 할 계획
- 서북국제물류센터는 이녕시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총 8억 위안을 투자하여 건립할 예정
- 연간 화물량은 약 8,000만 톤으로 예상되며, 교역액은 900억 위안으로 전망

○ 서북국제물류센터는 정부의 위탁으로 개발 되었으며 올해 10월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임
- 향후 이닝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서부지역간의 교역로로 역할을 담당 하면서 국내 화물 운송과 더불어 중앙아시아와의 수출입 물류 중심지로 부각 될 수 있음
- 도로운송, 창고배송, 물류정보 서비스 등의 업무를 담당 할 예정임

자료 : www.chinawuliu.com 2013.7.9.

전혜경 연구원 (☎ 02-2105-2982, saeii@kmi.re.kr)

□ CMA CGM, Round-the-world 서비스 업그레이드

○ 프랑스 기반의 글로벌 선사 CMA CGM은 Round-the-world 파나마 직통 서비스를 2013년 9월 18일부터 격주가 아닌 매주 서비스로 진행하겠다고 발표
- CMA CGM의 글로벌 네트워크 통합으로 인해, 이 새로운 서비스는 호주, 뉴질랜드, 남태평양 제도, 중남미, 카리브해, 미국 동부해안, 북부유럽, 발트해, 지중해, 북부 아프리카 및 흑해 등 세계 15개국, 20개 항을 운항할 예정임
- 또한 이 서비스는 호주/뉴질랜드-유럽으로 가는 운송 중 가장 빠른 환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는 냉장화물을 운송하는 화주에게는 매우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발표

※ 새로운 Round-the-world 파나마 직통 서비스 루트 : 틸버리-로테르담-됭케르크-르아브르-뉴욕-사바나-킹스턴-카르타헤나-파페에테-라우토카-누메아-시드니-멜버른-타우랑가-네이피어-리틀턴-파나마 운하-만사니요-킹스턴-사바나-필라델피아-틸버리

자료 : www.lloydslist.com, 2013.7.15, www.shippingherald.com, 2013.7.16.

고안나 연구원 (☎ 02-2105-2925, ako@kmi.re.kr)

[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]

센터(KMI) 문의	• 해외투자사업 정보 및 해외투자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 등 해외진출 관심기업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로 문의
사업신청서 작성	• 해외투자사업 관련 구체적인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(지원)신청서 작성
사업추진계획 협의	• 기업의 의뢰 내용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(해운정책과)와 사전 지원사항 협의
예비조사 실시	• 사업가능성 확인을 위한 현지 경제무역 현황 및 물동량, O/D, 시설 등 해운물류현황 조사 • 현지 조사(Fact Finding) 실시
공동추진 → 설명회 개최	• 기업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• 초기 관심기업 우선지원
협의체 구성	• 관심기업들의 논의를 통한 협의체(컨소시엄) 구성
단독추진 → 사업추진계획 확정	• 사업추진방향, 전략, 정부 지원사항 등 협의
사업타당성 조사(FS)	• 물동량 예측, 투자비, 자금조달 계획 등
사업추진 및 투자	• 투자재원마련 등 사업추진

**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**